

압도적 1순위 후보 패싱... 이사회 입맛따라 선출 '파열음'

서울여대 총장선거 무슨 일이

총추위 1순위 후보 대신 2순위 선발 "근거 없는 행태" 대학구성원 반발 전해정 現 총장, 이사회 개입 의혹도 이사회, 절차상 하자 없다는 입장

서울여대 신입 총장으로 승현우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선임된 이후 학내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최근 간선제로 실시된 신입 총장 선거에서 대학 구성원 투표를 거쳐 총장 추천위원회(총추위)가 추천한 1순위 후보 대신 이사회가 2순위 교수를 총장으로 선발하며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특히 총추위 위원 15명 중 과반수인 11명이 추천한 후보를 제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 외부위원 4인이 추천한 후보가 최종 선출되면서 이사회 '입맛 맞추기식' 임명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5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정의학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승현우 정보보호학과 교수를 제9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4년이다.

그러나 간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이사회 측이 총추위 투표에서 득표



대학 캠퍼스 곳곳에는 이번 총장 선거 결과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성명서가 붙기 시작했다.

/서울여대 구성원

율 1위 후보인 김명주 교수대신 2위 후보인 승현우 교수를 차기 총장 후보로 결정하면서 교수와 재학생, 동문 등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여대 교수평의회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는 민주적 절차로 다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하지 않은 합당한 근거를 밝혀라"면서 "대학의 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등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이사회의 결정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총장 선거에는 김기숙 교수(기독교학), 김명주 교수(정보보호), 박동찬 교수(불어불문), 승현우 교수(정

보보호), 이창석 교수(화학생명환경과학) 5명이 입후보자로 나섰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최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15명의 위원 중 김명주 후보 11표(73.3%), 승현우 후보 4표(26.7%)를 획득했다. 김명주 교수는 교수 대표 7인과 직원·동문 각 2인 등에서 총 11표를, 승현우 교수는 교계대표·사회유지 등 외부위원 총 4인에게 표를 얻었다.

서울여대 총장 선출은 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총장 후보자 최종 2인을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총장 1인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추위는

교수 대표 7인과 직원·동문·교계 대표 각 2인, 사회 유지 2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총추위 교수·직원 위원 추천을 위한 교내 투표에서도 5명의 후보자가운데 김명주 교수가 교수회의 투표 결과 119표(63%), 직원회의 투표 결과 58표(65.9%)를 획득해 1위에 꼽혔다.

특히 총추위 외부위원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대학 구성원들은 '법인 입맛따지기식' 선임 의혹을 제기한다. 재단이 최근 총장으로 선임한 승현우 교수는 총추위 위원중 대학 구성원이 아닌 외부위원에게만 최고득표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도.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인 이사 12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으며, 승현우 교수는 7표를 득표하며 선출됐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여대 지부도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는 전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대학의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자 했던 열망과 기대를 가차 없이 무시한 것뿐 아니라 재단의 명분 쌓기에 전 구성원이 이용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며 "이사회 전횡으로 선임된 총장이 구성원 지지는 물론 우리 대학 발전

과 화합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총장인 전해정 총장이 이사회의 총장 선임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평의원회는 "이번 총장선출과정에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수회의 조차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다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총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는 등 명백하게 중립성을 위반했다"면서 "퇴임하는 총장이 왜 특정후보의 편을 든 것인지, 그 의도를 명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대학 캠퍼스 곳곳에는 이번 총장 선거 결과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성명서가 붙기 시작했다. 총동창회는 이와 관련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모교를 위한 동문 릴레이 급식기도회'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 구성원은 "이번 총장선출과정을 겪으면서 대학이 왜 총장직선제를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다"면서 "특히 신입 총장 선출 과정에서 현 총장과 법인 측이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금의 간선제는 임명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총장 선출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대학 통폐합시 장애인 특별전형 정원감축 제외

신속년 첫 국무회의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개정안 의결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보장

대학 간 통폐합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감축대상 정원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법령상 4년제 대학(일반대·산업대)과 2년제 전문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전문대 입학정원을 60% 이상 줄여야 한다. 3년제와 4년제 학과의 경우는 각각 40% 이상, 20% 이상 정원을 감축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감축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은 제외하고 나머지 입학정원 중 해당 비율 이상을 줄이면 된다. 대학 간 통합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정원이 많을수록 정원을

덜 감축하는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경기도 안성 소재 한경대와 평택 소재 한국복지대 통합 논의 과정에서 나왔고, 두 대학의 통합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경대와 한국복지대 간 통합 신청이 상반기 중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보장과 장애인 취업 경쟁력과 고용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로 돼있는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규정해 모든 대학이 해당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명칭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해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와 비대면 교육 확대에 부응하자는 취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성균관대, 뇌 통증 확인 바이오마커 개발

우창완 교수 연구팀

MRI 이용 뇌 커넥트 변화 패턴 기록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 게재

성균관대는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우창완 교수 연구팀이 미국 다트머스대의 토어 웨이거 교수 연구팀과 함께 뇌기능 커넥트를 기반으로 지속되는 통증을 읽어낼 수 있는 뇌영상 바이오마커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팀은 통증을 오랜 시간 안전하게 유발할 수 있는 실험 방법으로 캡사이신을 혀에 발라 약 10분 동안 통증을 효과적으로 유발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피험자가 입안에서 통증을 느낄 때 기능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뇌기능 커넥트의 변화 패턴을 기록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증 마커는 109명의 건강한 실험 참가자들의 지속적 통증 강도를 성공적으로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192명의 허리통증 환자들의 통



(왼쪽부터) 이수안(공저자, 박사과정), 이재중(제1저자, 박사과정), 우창완(교신저자), 김홍지(공저자, 박사과정). /성균관대

증 점수 또한 높은 정확도로 예측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슨에 1월 5일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신진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한국뇌연구원에서 지원하는 3개 국가뇌연구기관 뇌연구협의체과제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이현진 기자

숙명여대, 여성창업 앞장... 국무총리 표창

지역 창업·일자리 창출 선도적 역할

숙명여대 산학협력단(단장 이명석)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2020 실패박람회'에서 주민 주도 지역문제 해결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실패박람회는 실패·극복·재도전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실패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상을 주는 행사다.

숙명여대는 지난 2010년부터 대학이 주도하는 산학협력 진화형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여성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해왔다. 또 창업교육과 실습,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숙명여대는 용산구를 포함하는 지역사회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이 평가됐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수



(왼쪽부터) 이명석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장, 김애희 기술사업화센터장, 이현규 담당자가 표창 수상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숙명여대

행하면서 여성 창업이 중추적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점도 인정됐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창업지원단 학생창업 성과·네트워킹 공유

회사 성과·창업과정 정보 나눠

세종대 창업지원단은 최근 학내에서 '세종학생창업 성과공유회와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업자들이 회사성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창업 과정에 대해 정보를 나눴다.

행사에는 스프링, 에프텐, 주간감성,

셀핀, 삼삼오래, 보바, 스위트파이, 프리미엄스, 가론시스템 등 9개 기업이 참여했다. 스프링은 모빌리티 수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프텐은 공유공간 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셀핀과 보바는 각각 온라인 인테리어 시공 서비스와 프린팅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